

광남일보

‘광주·전남 행정통합’…6월 지방선거 목표 속도

시·도 동시 추진기획단 출범…통합 실행단계 돌입
강기정 시장 “주민투표보다 의회 동의 현실적”
김영록 지사 “6·3 통합단체장 선출·7월 출범”

광주·전남 행정통합 업무를 총괄할 전담 조직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이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동시에 공식 출범하며,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들어섰다.

▶관련기사 2·19면

광주시는 이날 오전 9시 시청 2층 추진기획단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식을 열고, 행정통합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남도 역시 같은 날 오전 도청 18층에 마련된 추진기획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통합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추진기획단 출범은 지난 2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발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동 선언’의 후속 조치다. 광주·전남 대통령이 더 이상 원론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제도 설계와 실행을 위한 단계로 넘어갔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광주시 추진기획단은 1단 2과 16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이 단장을 맡았다. 추진기획단은 행정통합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비롯해 민관협 의체 구성·운영, 시민 소통과 공론화 지원 등 통합 준비 전반을 담당한다.

전남도 추진기획단은 1단 2과 22명 규모로, 강위원 경제부지사가 단장을 맡아

통합 준비 기본구상과 종합계획 수립,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특례 발굴,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 운영 지원, 도민 의견수렴과 대외 홍보 등을 총괄한다. 사실상 통합 광역정부 출범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9일 대통령 간담회 이후 행정통합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는 데 무게를 두고 법안 준비에 착수한 상태”라며 “대통령 간담회 이후 법안 처리는 빠르게 하자고 정경래 민주당 대표와 이야기했고, 지금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통합 절차를 두고 주민투표가 아닌 의회 동의 방식을 주장하며 신속한 통합 추진 의지를 보였다. 강 시장은 “주민투표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것은 헌법적 가치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전 사례를 보면 비용만 500억원이 드는 등 시기적으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부분은 속도인 만큼 행정통합 관련해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시·도의회의 결정에 맡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정치 공학, 정치 쟁점 앞세워 통합을 좌초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남도 현판식에 앞서 김 지사는 구체적인 통합 일정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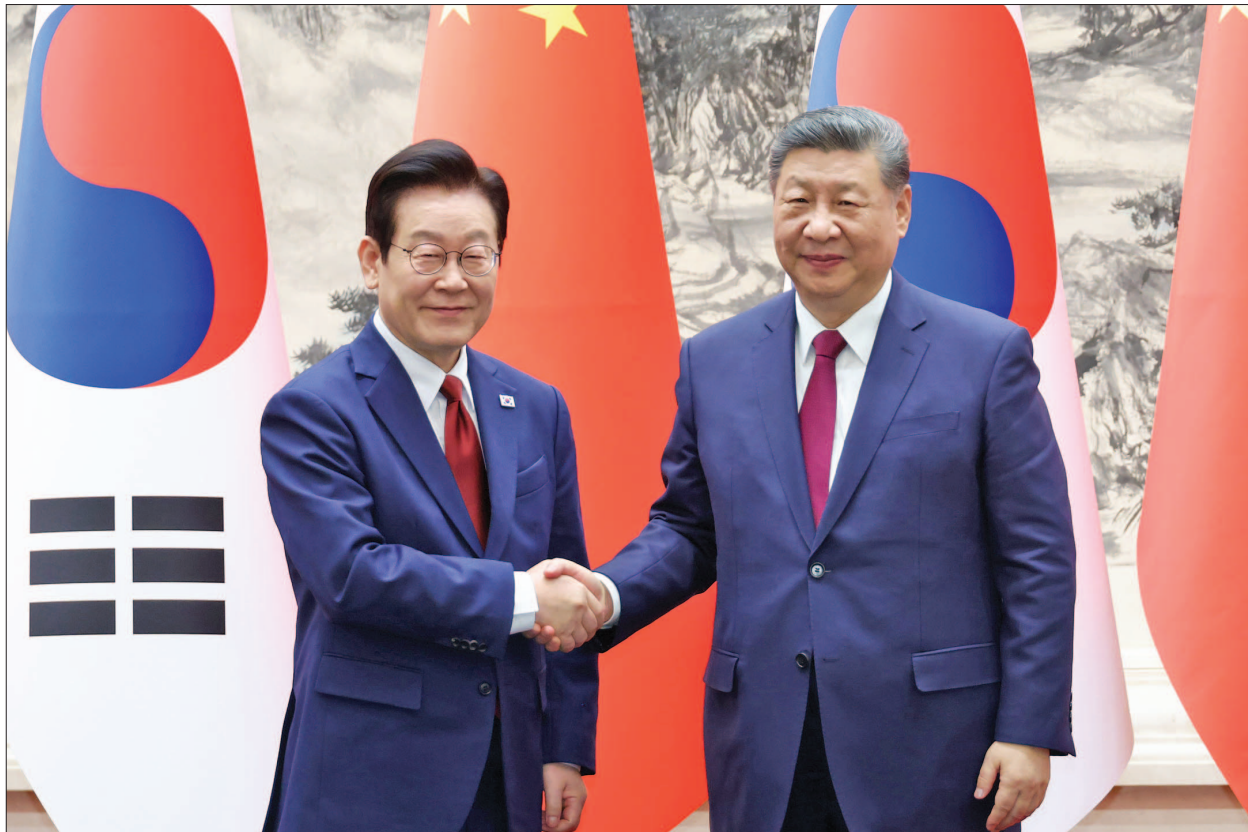
김 지사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을 기점으로 320만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 제1호 통합 광역지방정부 출범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양 시·도 추진기획단은 앞으로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통합 논의를 공동으로 이끌 계획이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도 설계와 여론 수렴, 국회 입법 대응 등을 병행하며 속도와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5국 3특 체제’ 구상 속에서, 광주·전남을 남부권 핵심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AI·에너지·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재편 국면에서 초광역 단위의 정책 집적과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통합이 실현될 경우 서울특별시와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 부여, 재정·권한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 배분, 공공기관 이전 논의 등 제도적 효과도 기대된다. AI·반도체·RE100 산업단지 조성, 민·군 통합 공항 등 광주·전남이 각각 추진해 온 초광역 핵심사업 역시 통합을 계기로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한경

한중, 디지털 기술 등 14개 분야 협력

이재명·시진핑 정상회담

베이징서 양국 부처 수장 양해각서 서명
경제·민생분야 상호 공동이익 실현 기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환경 및 기후협력, 디지털 기술 협력 등에 관한 1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한국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대 제작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 국가문물국에 기증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5시 45분(현지 시각) 베이징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열고 양국의 관심이 큰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의 교류 확대를 합의했다.

양국이 합의를 도출한 협력 분야는 총 14개 분야이며, 각 부처 수장들은 양 정상에게 지켜보는 가운데 개별 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했다.

우선 ‘아동 권리보장과 복지증진’ MOU에는 아동 우선 정책 원칙을 공공 정책·시설·서비스 등에 통합해 추진하기 위해 양국 간 정책소통, 사업협력,

인적교류 등 협력 내용이 담겼다.

‘글로벌 공동 도전 대응을 위한 과학 기술혁신’ 협력에는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자 간 교류 확대를 통해 연구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과 기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양국은 미세먼지 등 대기분야 중심 협력에서 순환경제 등 글로벌 이슈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디지털 기술’ 협력 MOU는 디지털 분야 교류·협력 확대 기반을 구축하고 양국의 디지털 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디지털 확산 등 정책 공조를 통해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분야’ 협력 양해각서에서는 양국이 분야별로 국장급 협의체를 장관급 정례 협의체로 격상해 교통분야 협력을

넓혀 가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는 △유망 스타트업 협력 분야 발굴 △정보·경험 공유 △인적교류 △투자 활성화 △기술·비즈니스 협력 프로그램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 협력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 등이 담겼다.

산업통상부 장관과 중국 상무부장은 ‘상무 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해 체계적으로 경제·통상에 대한 협력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무역·투자 장려는 물론 제3국 시장 진출과 공동연구 등에 나서는 ‘산업단지 협력 강화’ 양해각서에도 서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코스피 4400선 돌파 또 ‘사상 최고’

반도체 강세…삼성전자 7.47% 급등 ‘14만전자’ 코앞

코스피가 5일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들 등에 업고 역대 처음 44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지난 주말 베네수엘라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장보다 76.29p(1.77%) 오른 4385.92로 출발해 147.89p(3.43%) 오른 4457.52에 거래를 마쳤다.

▶관련기사 4면

이는 직전 거래일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4309.63과 장중 사상 최고치인 4313.55를 동시에 갈아치운 것이다.

코스피 상승폭도 지난해 4월 10일(151.36p)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당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소식에 코스피가 급등한 바 있다. 외국인인 2조1751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5099억원과 7030억원을 순매도했다. 하지만 외국인인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5254억원 매도를 나타냈다. 특히 삼성전자는 개장과 동시에 4.75%

오른 13만4600원으로 출발해 역대 최고치인 13만8100원으로 7.47% 급등했다.

SK하이닉스도 이날 ‘70만닉스’를 터치하며 삼성전자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해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2.81% 오른 69만6000원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역시 전장보다 11.93p(1.26%) 상승한 957.50으로 지난 2022년 1월 20일(958.7)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2.99p(0.32%) 오른 948.56으로 출발해 잠시 하락 전환하기도 했으나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양재호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